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의 악순환 -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을 중심으로

박다솜*

1. 들어가며 -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와 ‘맘충’의 공존
2. ‘여성-모성-사회’ 삼항조와 사회가 모성을 활용하는 방식
3. 승배와 혐오의 순환
 - 3-1. 현실과 재현을 횡단하는 승배/혐오 -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디지털 독자의 수행성
 - 3-2. ‘엄마’라는 욕 -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 하는 게임>
4. 나갈 수 없는

국문초록

한국의 학술장에서 돌봄 담론이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한 이후, 여성의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의 요구는 점차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인정의 부재가 명확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인정의 문제에는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다. 대중문화의 담론장에서 돌보는 여성들에 대한 승배가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맘충’이라는 혐오 표현이 일상적 언어 사이를 활보하고 있기도 하다. 이처럼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 현상이 함께 발견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재클린 로즈는 사회가 그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모성 개념을 적

*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강사

극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모성에게 전가하곤 했다. 한국에서 모성 주체는 그 자신이 이미 살인적 경쟁 교육에 휘말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교육제도의 여러 폐해가 떠넘겨지는 문제적 이미지로 전유된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 소설〈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당신’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이미맘’ 캐릭터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들은 자녀의 교육에 집착하는 모성 이미지에 대한 혐오 수행이 끝내 모성 신화를 강화하는 과정의 전모를 보여준다. 한편 박서련의 소설은 온라인 게임상에서 ‘엄마’가 욕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혐오 발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주체에게 ‘엄마’가 가장 승고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승배는 혐오의 원인이다.

본 논문은 승배와 혐오가 결국 모성을 타자화하는 태도라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동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승배/혐오가 긴밀한 인과론적 순환 속에서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승배와 혐오가 순환하는 매커니즘은 이미 한껏 왜곡되어 있는 상징적 장 안에서의 문화적 인정이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본고는 우리 사회의 모성 개념이 갇혀 있는 승배/혐오의 사이클을 규명함으로써 모성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여전히 시급한 문제임을 상기시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여성혐오, 모성 혐오, 모성 신화, 모성 승배, 제도화된 모성)

1. 들어가며 –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와 ‘맘충’의 공존

2025년 2월 개그우먼 이수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를 통해 새로운 캐릭터 ‘제이미맘’을 선보였다. 제이미맘은 대치동에 거주하며 자기 아이의 천재성을 굳게 믿고, 고상한 말투로 아이의 ‘영재적인 모먼트’에 대해 설명하는 극성스러운 어머니상을 재현한다. 해당 캐릭터는 등장과 함께 큰 사랑을 받으며 대중의 화제로 부상했는데, 특정 개인을 저격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능한 개그우먼으로서 이수지가 보여주는 다양한 캐릭터들 중 제이미맘을 향하는 폭발적 관심과 논란들은 그저 우연의 산물일 뿐인 걸까? 본고는 제이미맘을 둘러싼 대중의 정념과 그로 인한 논란이 ‘모성’을 대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이에 제이미맘과 해당 캐릭터의 소설적 대응물이라 할 수 있는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당신’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날 한국의 대중문화 담론장에서 ‘모성’이 의미하는/기능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박서련 소설의 ‘당신’은 제이미맘과 같은 외별이 가정의 여성 주체로, 자기 아이의 특별함에 대해 확신하며 아이 교육과 돌봄에 헌신하는 인물이다. 게임까지도 과외를 시켜주기 위해 게임 선생님들의 면접을 보는 소설의 내용은 제기차기 과외 선생님을 만나는 제이미맘의 첫 번째 에피소드¹⁾와 직접 호응한다. 두 모성은 사교육의 영역이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주요 교과목 바깥으로 훨씬 넓어진 한국의 자본화된 교육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모성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기대되는지 보여준다. 오늘날 한국에서 모성은 자녀의 학업성적뿐

1) 2025년 6월 17일 현재 ‘제이미맘’ 에피소드는 3화까지 업로드되어 있다.

만 아니라 교우관계나 외모, 자존감, 정서적 안정 등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분야에 걸쳐 두루 책임/권능이 있는 듯 보인다. 이것이 모성을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며 ‘따라서’ 모성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모성 숭배와 모성 혐오가 순환하며 결국 모성 신화를 굳건하게 만드는 풍경을 제이미맘과 박서련 소설의 ‘당신’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1972년 마리아로사 달라 코스타와 셀마 제임스가 각각 「여성의 힘과 공동체의 봉고」, 「여성의 자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시작된 ‘가사노동에 대한 임금지불운동(Wages For Housework)’은 ‘가사노동/임금노동’이라는 자본주의적 구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그간 “사랑, 돌봄, 감성, 모성, 부덕 등으로 표현되었”²⁾던 여성의 가정 내 노동에 대한 경제적 인정을 요구하는 최초의 시도였다. 비록 이 운동은 “가사노동에 임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가정주부의 고립화와 원자화는 예전할 것”이라는 점, 임금노동의 보편화가 “자본주의의 전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소외와 상품생산의 전면화로 이어지게 될 것”³⁾이라는 점, 임금 지불의 주체 선정의 어려움과 같은 내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채 사그라들었지만, 여성 이 가정 내에서 수행하는 재생산 노동을 정치적 논쟁의 대상으로 올려두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의를 갖는다.⁴⁾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여성주의 담론장 안에서 지속되어 오던 돌봄 노동에 관한 논의는 2015년의 폐미니즘 리부트 이후 한층 전방위적으로 전개되었다. 널리 퍼져 있는 신자유주의적 착각(인간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립적 존재라는)과 달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취약한 존재이며 따라서 돌

2)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97쪽.

3) 마리아 미즈, 위의 책, 99-100쪽.

4) 해당 문단 마리아 미즈, 위의 책, 96-101쪽 참고함.

봄이란 인간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본 원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돌봄을 전제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들이 새삼스레 빛발쳤다. 모성 주체가 가정 내에서 수행해 온 돌봄 노동은 경제적으로도, 사회·문화적으로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다는 인식이 점차 우리 사회의 통념이 되었다.⁵⁾ 역사적으로 모성은 가정 내부의 돌봄 노동을 강요받아 흘로 그 모든 노동을 묵묵히 수행해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물적·관념적 인정조차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은 오직 이혼을 통한 재산분할의 형태로만 인정된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인정의 문제는 꽤나 명백하다. 혼인을 종료하지 않는다면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환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만일 혼인을 종료하는 시점에 가계 자산이 부재한다면 과거에 수행한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 역시 보전할 방법이 없다. 이는 가족을 기본 경제 단위로 설정하는 우리 사회에서 가정 내부의 가사 노동 및 돌봄 노동이 무급 처리되는 법적·제도적 현장이다. 가정 안에서 여성들이 수행하는 돌봄 노동은 이처럼 혼인 관계를 종료하고 가족 제도 바깥으로 나올 때에야 가시화되므로, 혼인을 지속하는 경우에는 평생에 걸친 돌봄 노동이 무급으로 산정되어 비가시적 영역에 분류되고 만다.

이에 비해 여성의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에 관해서라면 ‘불인정’ 판정을 다소 망설이게 된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와 같은 문장들이 여전히 ‘명언’의 지위를 차지한 채 대중서사의 담론장을 활보하는 까닭이다. 모성의 신화는 와해될 생각이 없어서, ‘엄마’나 ‘할머니’처럼 가정 안에

5) 경제적 인정과 사회·문화적 인정이라는 두 기준, 즉 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에 관해서는 낸시 프레이저의 논의를 참고할 것.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페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존재의 재현은 최근까지도 신파 서사의 단골 소재이며 변함없는 성공 비책이기도 하다.⁶⁾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모성의 가정 내 돌봄 노동은 그 경제적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것과 달리, 사회·문화적 인정은 과잉된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해볼 수 있겠다. 이 두 사실—경제적 가치의 불인정과 사회·문화적 과잉 인정—이 상생 관계를 맺고 있음을 물론이다. ‘모성의 돌봄 노동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승고한 것이다, 따라서 값을 매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모성 신화화 전략은 돌봄 노동의 무임금화를 지속시킨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라면 가사 노동에 임금을 지불하자는 주장은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인정-사회·문화적 불인정’ 쌍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모성이 신의 지위를 넘보는 고귀한 것으로 의미화 될 때, 경제적 인정과 사회·문화적 인정은 양립 불가능하므로 분배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는 불행하게도 택일 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사회·문화적 과잉 인정’이라는 앞선 진단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이는 ‘맘충’으로 대변되는 ‘모성 혐오’⁷⁾ 현상을 배제한 판단이기 때문이다. 여성혐오⁸⁾의 일종으로 분류될 수 있는 모성 혐오는 “어머니 괴롭

6) 가장 최근의 성공 사례는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인 듯하다. 해당 드라마는 이를바 한국식 가족주의를 집대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꿈도 재능도 넘칠 만큼 많았던 엄마 ‘애순’이 출산 이후 자녀 ‘금명’에게 자아를 의탁하고 악착스럽게 희생하는 이야기에 한국 사회는 여전히 울고 또 운다.

7) 여성 주체의 ‘모성 거부’와 사회의 ‘모성 혐오’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성 혐오’라는 단어를 시몬드 보부아르나 슬라미스 파이어스톤을 떠올리며 ‘엄마 되기를 거부하는 여성 주체의 태도’라는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부의 직접적 원인이 되기 십상인 ‘모성에 대한 사회적 혐오’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한다.

8) 주지하듯 ‘여성혐오’로 번역되는 미소지니(misogyny)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남성동성사회(보편)를 구축하기 위해 여성을 성적 객체화함으로써 예외의 자리에 불박여두는 전략을 의미한다. 예외로서의 여성은 성녀와 창녀로 구분되어 각각 생식의 영역/쾌락의 영역에 귀속되는 방식으로 타자화된다. (우에노 지즈코,

하기는 소위 문명 세계라는 곳에서 일종의 놀이에 가깝다”⁹⁾라는 말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 있는 문화적 태도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와 ‘맘충’의 공존, 즉 모성을 신화화하고 승배하는 태도와 모성에 대한 혐오가 함께 발견된다는 사실에 본고는 주목한다. 승배와 혐오는 대상(모성)을 타자화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상동성을 갖는다. 이 글은 모성에 대한 승배와 혐오가 같은 원리로 작동할 뿐만 아니라, 두 개념이 논리적으로 순환하며 서로를 부추기고 공고화하는 매커니즘을 한국 사회의 모성 이미지 속에서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의 순환 매커니즘을 밝히는 일은, 모성의 가정 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을 요청하는 태도가 어째서 위험한 것일 수도 있는지 알려준다. 여성들이 오랜 시간 담당해 온 돌봄 노동을 문화적으로 인정하는 일이 견고한 모성 신화 속에서 이뤄질 때, 그것은 모성 승배와 매끄럽게 연결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가 순환하는 개념들이라면 돌봄 노동에 대한 문화적 인정의 촉구가 결국 모성 혐오로 연결되고 마는 불행한 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 이는 “여성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혹은 모성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배려하고 보살피는 윤리적 주체라고 설득하는 것은 자승자박이다. 그럴 경우 사회 전체가 보살펴야 할 미래 세대를 여성에게 전부 떠넘기고 그로 인한 애증과 혐오 까지 전부 감당해야 하는 것이 여성의 뜻이 되어버린다”¹⁰⁾라는 타당한 지적과 함께, 이미 왜곡되어 있는 상징적 장 안에서 모성의 돌봄을 의미화하는 일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22, 제1장-제2장 참고.)

9) 재클린 로즈, 『승배와 혐오: 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김영아 역, 창비, 2020, 18쪽.

10) 임옥희,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85쪽.

2. '여성-모성-사회'의 삼항조와 사회가 모성을 활용하는 방식

역사적으로 모성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는 시몬 드 보부아르의 지적에서 시작되었다. 보부아르는 1949년에 발표한 『제2의 성』에서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모성성' 자체를 여성 주체에게 가해지는 실존주의적 억압으로 보았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우리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라는 보부아르의 주장은 페미니즘 이론의 전 분야에 영향을 끼치며 다양한 논의를 낳았고, 이는 모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다. 보부아르 이후 모성이 사회적 구성물임을 입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도 이런 흐름은 유효하다. "4세기에 걸친 프랑스 여성들의 모성적 행동에 관한 역사를 살펴" 11) 봄으로써 모성애의 우발성을 주장하는 엘리자베트 바랭테르의 『만들어진 모성』(1980)이나, 독일 사회의 출생률 감소를 중심으로 모성/모성애의 역사를 살피는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의 『모성애의 발명』(2006)을 이런 맥락 속에 위치시킬 수 있을 것이다.¹²⁾

11) 엘리자베트 바랭테르, 『만들어진 모성』, 심성은 역, 동녘, 2009, 19쪽.

12) 루시 쿡의 『암컷들』은 진화생물학적 관점에서 '본능으로서의 모성애'가 미신임을 입증한다. "물고기의 경우 전체 종의 3분의 2가 양육의 모든 책임을 아비 혼자서 지는 성글대디이고, 어미는 알을 기여하는 것 이상은 하지 않고 사라져버린다."(218쪽) 개코 원숭이 암컷 중 초산인 산모들은 새끼를 안는 방법을 몰라서 새끼를 거꾸로 안고 땅에 질질 끌고 다녀 새끼가 죽기도 한다.(228쪽) 동물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육아의 방식은, 모성애가 암컷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인간 사회의 고집스러운 통념에 반박하고 있다. (루시 쿡, 『암컷들』, 조은영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3, 쪽수는 괄호 안에 별도로 표기함.)

한편 세라 블래퍼 허디는 '사회적 야망'과 '모성'의 대립 구도를 전복하며 생물학적·역사적 모성 안에서 사회적 야망을 식별해 내고 있어 흥미롭다. 중국의 성감별 낙태를 언급하며 시작(각주에는 한국의 성감별 낙태 이야기가 붙어 있다)하는 『어머니의 탄생』 13장 「아들이냐, 딸이냐?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모성이 사회·문화·경제적 상황에 따라 특정 성별과 출생 순위를 선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원하는 가족 구성을 이루기 위해

모성이 사회의 구조적 산물이라는 전제를 공유하며 에이드리언 리치는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1976)¹³⁾에서 모성의 의미를 ‘제도’와 ‘경험’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보부아르가 지적한 ‘여압으로 기능하는 모성’을 ‘제도’로 한정하고, 제도 바깥에서 다양하게 발견될 수 있고/발견되는 경험적 모성의 잠재력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이후의 모성 논의에 유의미한 준거점이 되어주었다.¹⁴⁾

한편 사라 러딕은 1989년 발간된 『모성적 사유』에서 ‘어머니역할(mothering)’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면서, 보부아르의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되는 것이다”를 ‘어머니’ 개념에도 적용한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그러하다. 여성도 남성도 어머니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특정한 역사적·사회적 여건 속에서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¹⁵⁾ 임신·출산을 육아와 분리해내면서 “어머니역할의 활동이 특별히 여성만의 것이어야 하는 이유는 없다”¹⁶⁾고 주장하는 러딕의 입장은, “남성을 지금의 여성과 같은 존재가 되도록 더욱더 설득하자”¹⁷⁾며 ‘보편적 돌봄제공자’ 개념을 제안하는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과도 공명한다.

전략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어머니는 다면적인 생명체로, 여러 정치적 목표들을 손에 쥐고 곡예를 하는 전략가다. 그 결과, 태어난 각각의 아이들에 대한 혼신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랐다.”(새라 블래퍼 허디, 『어머니의 탄생』, 황희선 역, 사이언스북스, 2010, 21쪽.)

13) 원제는 'Of Woman Born: Motherhood as Experience and Institution'이다.

14) 관련하여 리치는 이렇게 쓴다. “가부장적 사고는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매우 좁은 범위에 한정시켰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해방론적인 사상은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을 무시하려고 했다. 나는 여성해방론이 우리의 육체성을 운명이 아니라 자원으로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한다.”(에이드리언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 평민사, 2018, 42쪽.)

15) 사라 러딕, 『모성적 사유』, 이혜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111쪽.

16) 사라 러딕, 위의 책, 19쪽.

17) 낸시 프레이저, 앞의 책, 21쪽.

모성에 관한 이론적 입장들은 ‘여성-모성-사회’라는 삼항조 속에서 제각기 방향을 달리하며 분투해 왔다. 보부아르와 리치는 여성‘에게’ 모성이 의미하는 바를 고민했다. 보부아르는 모성이란 사회가 여성 개인에게 가하는 억압이라고 보았고(여성←모성←사회), 리치는 보부아르의 견해에 동의하는 한편 사회적 압박 너머에서 여성의 경험하는 고유의 측면이 있음을 설파했다. 한편 사라 러덕은 모성으로부터 여성의 분리해내는 시도를 통해 모성 개념을 다시 사회로 돌려주고자 했다.(여성/모성→사회)

이들과는 또 다른 방향에서 재클린 로즈는 사회‘에게’ 모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물음으로써 사회가 모성을 활용하는 방식을 폭로한다. 사회는 여성 주체에게 모성을 강요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문제점을 은폐하기 위해 모성을 동원하기도 한다. 로즈는 『승배와 혐오』(2018)에서 “서구 담론에서 모성이란, 우리 문화 속에서 온전한 인간이 무엇인지를 둘러싼 갈등의 현실을 가두거나,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현실을 감추는 장소”¹⁸⁾라고 주장한다. ‘어머니’는 현실의 구조적 문제를 가리는 기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거의 언제나 어머니는 지나치게 주목받거나, 혹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다”¹⁹⁾는 것이다. 어머니가 지나치게 주목받는 상황이란 곧 승배 또는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사회는 자신에게 내재된 문제를 직면하지 않기 위해 어머니를 승배하거나 혐오하는 방식으로 논점을 흐린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랫동안 어머니의 고통을 이용해왔다. 비탄에 잠긴 어머니상은 지진 같은 이른바 ‘자연’재해를 대표하는 이미지였다. 이 이미지에서 어머니는 범보 아엘라볼라의 경우처럼 그 책

18) 재클린 로즈, 앞의 책, 6쪽.

19) 위의 책, 19쪽.

임을 추궁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불행을 이용당하고 세상의 전면에서 밀려난다는 점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붕괴한 빌딩을 세운 건축업자, 비용을 절감하려고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한곳에 몰아넣어 비인간적으로 밀집된 공간을 만들어 낸 도시계획가—은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14만여명의 사망자를 낳은 1923년 칸포오 대지진(관동 대지진-인용자) 당시 나오베와 같은 얼굴이 신문 1면을 도배한 데 대해 반감을 표했다. 대신 한 신문이 「강철은 이겨냈다」(오직 견실하게 건축된 건물만이 살아남았다)라는 표제와 함께 건물의 잔해 한가운데 몇몇 견고한 구조물이 서 있는 사진을 실었는데, 브레히트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유일하게 온전한 정치적 대응이라고 칭송을 보냈다. (...) 브레히트의 요점은, 우리가 철골구조물을 보면서 울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생각할 것이다. 바라건대, 그런 다음 우리는 행동하고, 조직하고, 시정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²⁰⁾

재난을 ‘슬퍼하는 어머니’로 번역하는 매체의 태도는 모성 신화를 강화하는 방법을 통해 재난의 원인·해결 방안 등을 정치적으로 사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두루 문제적이다. 인용문의 사례를 ‘현실을 감추기 위한 모성 신화의 활용’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모성은 지나친 주목 속에서 송배되고 있다.

모성이 지나친 주목 속에서 혐오되는 사례, 즉 모성을 혐오함으로써 현실의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는 한국 사회의 모성 재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모성 혐오는 주로 과열된 사교육 문제와 맞물려 발현되어 왔다. 총 3부작으로 기획되어 2011년 5월 30일부터 2011년 6월 1일까지 방영되었던 EBS <다큐프라임-마더 쇼크>는 현실의 어머니들이 겪는 실체

20) 위의 책, 23-24쪽.

적 어려움을 세밀히 관찰하며 신화화된 모성 개념에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다큐는 육아의 고충을 진솔하게 토로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을 비추며 모성애는 자연적 본능이 아님을 역설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모성 신화를 문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한국적 모성의 특수성을 변별해내기 위해 마련한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의 비교 실험은 다소 문제적이다.²¹⁾ 제작진은 아이가 퀴즈를 맞추는 동안 엄마가 보이는 태도(직접적으로 간섭하는지, 멀리서 지켜보는지 등)를 관찰하기 위해 아이의 어휘력 테스트로 가장한 실험을 진행하는데, 미국 아이들에게 제시된 단어(EAGLE, ZEBRA, LEOPARD)와 한국 아이들에게 제시된 단어(나무젓가락, 회오리열차,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이에는 현격한 난이도 차이가 존재한다. 해당 실험은 비교 단어의 난이도 조정에 실패한, 잘못 설정된 실험인 데다가 이러한 설정의 오류를 “한국 엄마들은 오직 정답을 맞추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와 같은 내레이션을 통해 ‘한국 엄마들’의 문제로 치환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모성을 활용하는 부정의한 방식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에서 ‘교육’의 문제는 자주 ‘모성’의 문제로 자리바꿈 하곤 한다.²²⁾

21) 해당 실험의 오류를 지적하는 글을 ‘엄청나게 욕먹었던 EBS 실험’, ‘형평성 없었던 EBS 실험’ 등의 제목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발견할 수 있다.

22) 이 밖에도 해당 다큐멘터리의 유튜브 썸네일이 “우리 아이는 나의 삶이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는 여성(어머니)의 얼굴이며, 얼굴 좌우로는 “대한민국 엄마들의 잘못된 모성애”라는 자막이 위치해 있다는 점도 모성 혐오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만한 지점이다. 해당 영상의 제목은 “자식 사랑은 한국 엄마가 최고? ‘그저 지나친 모성애’ | OECD 국가 중 행복지수 꼴지가 된 대한민국 청소년들, 엄마의 애착과 관련된 이유”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SJWBzU3S_nA). 이와 같은 내러티브들은 한국 교육제도의 충제적 문제들을 모성에게 손쉽게 전가한다.

이런 식의 모성 혐오는 다른 모든 여성혐오와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 곳곳에 부지런히 포진해 있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에서 매해 발간하는 『카

2025년 2월 14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 1400회는 〈‘7세 고시’ 누구를 위한 시험인가〉라는 제목하에 과잉된 사교육 시장의 문제를 조명한다. 소위 ‘빅3’라고 지칭되는 유명 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만 5~6세의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장면 뒤에는 그 아이들을 기다리는 한 어머니가 “나 이 짓 더는 못하겠어”, “나는 우울증이야 우울증”, “나 우울증 걸렸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진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가 아이 교육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가정 내 교육 담당자인 여성의 위치에서 기인한다. 학별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가정 내에서 아이의 교육이 오직 엄마만의 책임인 한국에서 모성은 아이 못지 않게 비교를 통한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다. (‘자녀를 서울대에 보낸 엄마’라는 뜻의 ‘서울대맘’을 떠올려 보자.) 엄마들의 자녀 교육 성과 역시 아이들의 성적만큼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불안을 조장하는 학원(자본)과 모든 인간을 대학 순위로 서열화하는 학별주의, 이를 능동적으로 방관하는 정부와 제도 등 한국 사회를 주조하다시피 하는 교육을 둘러싼 문제가 유난스러운 어머니의 이미지로 단순하게 치환될 때 모성은 손쉬운 혐오의 대상이 되며, 사회적 문제들은 지속될 뿐이다.

이스트 미래전략』의 2025년 판에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2024년 3월 29일자 기사 “Why family-friendly policies don’t boost birth rate”를 일부 발췌하여 수록하고 있는데 기사 원문의 “helicopter parenting”을 “헬리콥터 맘helicopter mom”으로 표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뉴스 기사의 “In 1965, mothers of young children in developed countries spent an average of just over an hour a day doing activities with their kids. By 2018 that had risen to three hours, and in Korea approaching four.” 부분을 활용하여 “선진국에서 엄마가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1965년 하루 평균 1시간 남짓에서 2018년에는 3시간으로 늘어났다. 한국의 헬리콥터 맘들은 4시간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한다”라고 쓰고 있다. 여성 주체가 홀로 아이의 돌봄을 전담하는 한국의 열악한 현실을 성실히 반영하면서 모성 혐오를 존속시키는 오역이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 김영사, 2024, 67쪽.)

한편 부모 중 한 명(암묵적으로 모성)이 자녀의 사교육에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은 해당 가정이 생계의 문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는 뜻이기도 해서, 지나치게 사교육에 몰입하는 모성의 형상은 외별이가 가능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임을 드러내는 표식이기도 하다. “성별 분업을 가능하게 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성장이 멈춘 2010년대”²³⁾ 이후 맞벌이 가정의 여성 주체가 임금 노동과 가사 노동을 이중으로 부과받는 고통 속에 놓이게 되었다면, 중산층 이상 외별이 가정의 여성 주체들은 여전히 성별 분업이 가능한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종속된 상태로 아이의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모성은 중산층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계급적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던 ‘제이미맘’ 캐릭터가 이에 해당한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의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 하는 게임>의 ‘당신’은, 중산층 이상 가정의 기혼 유자녀 여성 주체이며 자녀의 교육과 일상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면모를 보인다. 또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 하는 게임>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 안에서 ‘엄마’가 의미화되는 방식을 소재로 삼고 있으므로 이를 분석하는 일은 게임이라는 대중문화 속에서 모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제이미맘에 대한 분석은 그 자체로 현재의 대중 담론장을 살피는 일 이기에 두 텍스트를 함께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성 개념이 편취되는 구체적 맥락을 간파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모성 혐오와 모성 승배가 한 사회 안에서 기괴하게 공존하는 극단적 양면이기만 한 것이 아니며, 두 개념이 인과관계 속에서 순환하고 강화된다는 본고의 궁극적 주장을 두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보기로 한다.

23) 허윤, 「광장의 폐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144쪽.

3. 송배와 혐오의 순환

3-1. 현실과 재현을 횡단하는 송배/혐오 - 이수지의 ‘제이미맘’과 디지털 독자의 수행성²⁴⁾

개그우먼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2015년 이후에서야 이루어졌다. 폐미니즘 리부트의 의의 중 하나는 그동안 ‘자연적’인 것으로 비가시화되어 있었던 여성 주체들의 다양한 삶을 새삼스러운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시켰다는 점이다. 개그우먼을 학문의 층위에서 논하는 연구들 역시 이런 흐름의 결과물이다. 이국주와 박나래²⁵⁾, 김숙²⁶⁾, 이영자²⁷⁾ 등 유명 개그우먼을 중심으로 각 인물들이 보여주는 캐릭터성을 분석하거나, 김숙과 송은이가 함께 운영하는 팟캐스트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의 여성주의적 함의를 살핀 논문²⁸⁾이 현재 학술장에 제출되어 있다. “최근 리얼리티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드러나는 개그우먼들의 재현은 더 이상 과장과 왜곡으로 부풀려진 코미디 연기의 경계에 머무르기보다는 공감 가능한 현실적

24) 본 장은 다음 글의 논의에서 착안하였음을 밝혀둔다. <‘제이미맘’은 무엇을 긁었나>, 『한겨레21』, 2025.03.08., https://h21.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_ral/56979.html. (검색일: 2025.06.21.)

25) 이소현·장은미, 「예능 프로그램의 언니들: 여성성의 일탈과 확장」, 『한국여성학』 제34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8, 173-206쪽.

26) 특히 가부장제를 전복한 김숙의 ‘가모장숙’ 캐릭터는 미러링 전략(“남자가 조신하니 살림 좀 해야지”, “남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패가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어” 등)으로 기능하며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관련하여 심혜경, 「개그/우먼/미디어: ‘김숙’이라는 현상」, 『여/성이론』 제34호, 도서출판여이연, 2016, 60-81쪽.

27) 심혜경, 「개그/우먼/미디어 2: 이, ‘영자의 전성시대’ 아니 ‘이유미의 황금기’를 보라」, 『여/성이론』 제40호, 도서출판여이연, 2019, 220-238쪽.

28) 장은미·허솔, 「여성들의 놀이터, 일상의 경험이 공유되는 새로운 방식: 팟캐스트 <송은이&김숙 비밀보장>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7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11-153쪽.

여성으로 확장되어가는 변화를 보여”²⁹⁾준다는 적실한 진단처럼, 미디어의 변화와 맞물려 코미디의 성격도 변화되었다. 이른바 <개그콘서트>식의 원경 화면을 주로 사용하던 코미디가 예능인 개인의(또는 개인을 내세운) 유튜브로 옮겨오면서 클로즈업 화면을 더 자주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별 코미디언의 섬세한 연기력(“과장과 왜곡”이 아닌 “현실적” 특성)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소구력을 갖게 되었다. 이수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에 비해 한층 큰 주목을 받은 코미디언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에서 무당, 공구(공동구매)하는 인플루언서, 요가 선생님, 재미교포 등 다양한 캐릭터를 선보인 바 있다. 그 중 대치동에 거주하며 아이 교육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제이미맘’ 캐릭터는 단연 압도적인 대중의 호응³⁰⁾을 받았는데, 뜻밖의 논란도 낳았다. 제이미맘 시리즈의 1편에 해당하는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EP.01 ‘엄마라는 이름으로’ Jamie맘 이소담 씨의 별난 하루>에서는 제이미의 학원 라이딩을 하며 대기 시간에 차 안에서 김밥을 먹는 제이미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장면이 배우 한가인을 떠올리게 한다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다. 영뚱하게도 몇몇 누리꾼들은 한가인의 유튜브 영상에 찾아가 악플을 남겼고 자녀들을 향한 비난까지 등장하자 한가인 측은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기에 이르렀다.³¹⁾ 이수지의 다양한 캐릭터 중 유독 제이미맘에게 집중

29) 이소현·장은미, 앞의 글, 175쪽.

30) 2025년 5월 1일 현재 ‘핫이슈지’ 채널에 업로드된 동영상을 인기순으로 정렬하면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EP.01 ‘엄마라는 이름으로’ Jamie맘 이소담 씨의 별난 하루> 가 860만회의 조회수로 가장 앞 순서에 놓인다. 두 번째는 조회수 575만회의 <[휴먼다큐 자식이 좋다] EP.02 ‘엄마라는 이름으로’ Jamie맘 이소담 씨의 아찔한 라이딩>이고, 세 번째는 공구 인플루언서 슈블리맘 영상인데 조회수가 316만회로 두 번째와 도 큰 차이가 난다.

31) <한가인, 이수지 ‘대치맘’ 패러디에 불똥?…“극성 학부모” 악플 쏟아지자 결국>, 『세계

되는 격렬한 사회문화적 반응과 그로 인해 파생된 일련의 소요는 모성에 대한 한국 사회의 집착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바가 있다.³²⁾ 여기에 ‘대치동’이라는 지리·계급적³³⁾ 위치에 대해 느끼는 박탈감이 결부되어 있음을 물론이다.

풍자는 강자를 향해야 한다는 잘 지켜지지 않는 규율 속에서 1억 4천만 원짜리 포르쉐를 타고 3백만 원이 넘는 몽클레르 패딩을 입고 7백만 원짜리 샤넬 가방을 든 제이미맘은 계급적 강자로 분류된다. 이 사실은 제이미 맘을 ‘정당한’ 풍자의 대상으로 만들어준 듯 보이는데, 영상에 달린 인기 댓글³⁴⁾들은 제이미맘의 등장 이후 강남 일대에서 몽클레르 패딩이 창피한 아이템이 되었다³⁵⁾는 점을 거듭 즐거워하고 있다.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교육이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아닌 계층을 세습하는 도구가 되면서 ‘8학군’, ‘대치동’ 등 자본력을 통해 막강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한 지역과 부유층에 대한 사회적 정동은 질투 어린 호기심에서 점차 분노를 향해가는 듯

일보』, 2025.02.25.,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5510036?OutUrl=naver](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5510036?Ou tUrl=naver). (검색일: 2025.06.21.)

보인다. 그리고 이 분노는 가사 노동에 대한 물적·문화적 물인정 속에서 일종의 무임승차자로 간주된 전업주부를 조롱하는 에너지로 변용된다.

계급적 우위에 의해 별다른 거리낌 없이 제이미맘을 풍자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마음껏 비웃을 때, 여성이라는 젠더가 창출하는 정치적 역학은 은밀하게 후경으로 물러난다. 이는 제이미맘의 맞짝으로 볼 수 있는 ‘대치파파’의 재현 방식을 통해 한층 선명해진다. 배우 김동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연기덕후’에 제이미맘의 남편으로 분한 영상을 업로드했다. 해당 영상에서 대치파파는 회사에서 아침·점심·저녁을 다 해결할 정도로 성실한 일꾼의 모습, 모임에 나간 아내 대신 반차를 쓰고 아이의 학원 라이딩을 하는 가정적인 면모, 아내가 정해준 메뉴로 점심을 해결하는 순종적인 태도, 2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을 마음대로 결제하는 아내에게 결국 “잘했어 잘했어”라고 말하는 경제적 ‘을’의 자세까지를 두루 봄내며, 이른바 ‘잡혀 사는’ 남편의 전형으로 재현된다. ‘드센 아내와 잡혀 사는 남편’ 쌍은 한국 가족 서사에서 부부가 재현되는 클리셰적 방식이다. 그리고 가부장제의 남성 주체가 자기연민 속에서 스스로를 아둔하고 불쌍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시도는 거의 역사적인 것이다.

허윤은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분석하면서 해당 작품³⁶⁾이 “남성을 “억울하게도 죄인 신세가 되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와 닮아 있다”고 밀한다. 이어서 “1920년대에는 신여성 ‘못된걸’이, 1950년대에는 ‘아프레걸’이, 1970년대에는 호스티스가, 2000년대에는 ‘된장녀’ ‘김치녀’가 있다. 우리는 계속 여성에 대한 혐오 발화와 함

36) 허윤의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정비석의 텍스트는 이런 식이다. “여자들은 언제나 자기 감정에 흥분해서 스스로 유혹을 환영하는 것이다. 다만 그 유혹의 그물에 걸려들어서 억울하게도 죄인 신세가 되는 어리석은 존재가 남자일 뿐이다.”(정비석, 『자유부인』 상, 정음사, 1954, 63쪽; 허윤, 〈#지금_가장_정치적인_것은_여성적인_것이다〉, 박권일 외 5인, 『#혐오_주의』, 알마, 2016, 82쪽에서 재인용.)

께 살고 있는 것”³⁷⁾이라고 쓰는데, 이와 같은 여성혐오 표현의 계보에 2020년대의 ‘퐁퐁남’³⁸⁾을 추가해야 한다. 기존의 여성혐오 표현들이 ‘-걸’이나 ‘-녀’ 표현을 활용한, 여성을 타자화하는 방식의 명명이었다면 ‘퐁퐁남’은 이례적으로 남성 자신에 대한 명명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³⁹⁾ 남성의 피해자성을 창조해내는 방식으로 여성을 혐오하는 이른바 역차별론의 논리가 보다 뚜렷하게 부각되는 명명인 셈이다.⁴⁰⁾

한편 제이미맘 사태에서 코미디적 재현과 현실이 뒤엉켜 결국 모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매커니즘은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지점이다. 상술한 악플 사태 이후 tvN 예능 ‘유 퀴즈 온 더 블록’ 282회에 출연한 한가인은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회고하면서, 갑작스럽게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데리러 온 적이 없었다고 말한다. 생계 문제로 인해 바빴던 엄마가 안 오실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기다렸다며 끝내 눈물을 보인 그녀는, 자신은 비오는 날 학교 앞에 제일 먼저 가는 엄마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모성 이데올로기가 재생산되는 가장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도 일을 하는 동시에 비오는 날 자녀를 데리러 학교에 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아빠 또한 그런 돌봄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엄마만이 지금까지도 ‘결

37) 허윤, 위의 글, 83쪽.

38) ‘퐁퐁남’은 이른바 ‘설거지론’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과거 여러 남성과의 교제 경험이 있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설거지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런 결혼을 한 남성을 지칭할 때 주방세계의 대명사인 ‘퐁퐁’뒤에 ‘-남(男)’을 붙여 ‘퐁퐁남’이라고 하는 것이다.

39) 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퐁퐁녀’의 의미는 모호한 듯 보인다. 부부관계에서 퐁퐁남과 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의 의미를 때도 있고, 퐁퐁남과 결혼한 여성의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40) ‘비자발적 순결주의자(Involuntary celibate)’를 뜻하는 ‘인셀(Incels)’ 역시 이런 맥락의 용어다. 인셀 커뮤니티의 현실에 관해서는 로라 베이츠, 『인셀 테러』, 성원 역, 위즈덤하우스, 2023.

핍의 생산자’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굳이 언급해야 할까.

주체가 당면한 모든 문제의 원인을 유년기의 트라우마 속에서 찾아내는 프로이트식의 정신분석학은, 오늘날 모성에 과도한 역할을 부과함으로써 모성 신화를 적극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⁴¹⁾ 재클린 로즈는 “어머니는 언제나 실패”했으며 자신의 “주장의 핵심은 그러한 실패가 재앙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며 실패 역시 어머니에게 맡겨진 임무의 일부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그 결과 어머니는 세상의 온갖 병폐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 불가피한 실패 뒤에 찾아오기 마련인 분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죄책감을 갖게 된다.”⁴²⁾ 주지하듯 라캉은 인간 존재를 근본적 결핍으로 이해한다.⁴³⁾ 그러나 모성을 신화화하고 예찬하는 수다한 일상의 서사 속에서 어머니는 인간의 본원적 결핍마저도 메울 수 있는(메워야 하는) 불가능한 형상이 되고 만다. 이 불가능한 미션 속에서 모성은 그 가능성으로 인해 의심할 나위 없는 승배의 대상이 되며, 결국 그것을 해내지 못하기에 원망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는 승배와 혐오가 순환하는 널리 알려진 매커니즘의 재현이다.⁴⁴⁾ 신화화 속에서 기대하다가 (예정된) 실

41) 물론 이것은 ‘오늘날’만의 일은 아니다. 리치에 의하면 1830년대 미국 남성의 제도화 된 목소리 속에서 “어머니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후세들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 “바이런이 죄인이 된 이유는 어머니에게 있었다”와 같은 문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에이드리언 리치, 앞의 책, 48-49쪽.)

42) 재클린 로즈, 앞의 책, 41쪽.

43) 박다솜, 「결핍으로서의 주체–김윤식의 작가 연구 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언어문화』 제79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96쪽.

44) 관련하여 허윤은 ‘딸바보’와 여성혐오가 동시에 공론장에 등장했다는 점에 예리하게 주목한 바 있다. “나의 아내나 연인은 ‘김치녀’와 다른 ‘개념녀’이지만, 그 ‘사랑’이 좌절되면 쉽사리 ‘김치녀’가 될 수 있다. 내 아내와 연인에 대한 승배는 좌절을 경유하여 혐오의 정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혐오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여성은 스스로 대상화된 위치로부터 벗어나면 안 된다. ‘딸바보’와 여성혐오가 동시에 공론장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허윤,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통해 살펴 본 2000년대 한국의 남성성」,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대중

패에 실망하고 분노하며 때로는 스스로 새로운 신화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모성 신화가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온 역사적인 과정이다. 이때 제이미의 ‘영재적인 모먼트’를 재차 발견해내며 아이의 삶에 자신을 최대한 밀착하는 제이미맘이 새로운 신화가 되기를 자처하는 모성의 한 사례에 해당함은 물론이다.

제이미맘 사태는 이 과정이 코미디적 재현과 현실의 층위를 넘나들며 진행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차원의 이동이 가능했던 것은 누리꾼으로 지칭되는 대중의 적극적 독해에 의해서였다. 제이미맘 영상에서 한가인을 떠올리고 해당 유튜브 영상을 찾아가 악플을 쓰는 혐오의 수행은 풍자를 개인에 대한 조롱으로 치환해냄으로써 개그우먼 이수지가 특정 개인을 저격했다는 혐의를 만들어낸다. 누리꾼들의 능동적 혐오 수행이 이수지에게는 한가인을 공격했다는 논란을 야기했다면, 한가인에게는 잘못 없는 해명을 요구했다. 이 해명의 과정을 통해 모성의 신화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술한 것처럼 제이미맘이 야말로 새로운 신화가 되길 갈망하는 모성의 사례라는 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제이미맘에게로 돌아온다. 현실과 재현이 적극적으로 반향하며 강화되는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의 순환 구조는 2025년 한국의 담론장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3-2. ‘엄마’라는 욕 –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재클린 로즈에 의하면 “세상의 현실이 어머니들이 이상에 부합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드는데도 이상화 경향은 누그러들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모성 담론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⁴⁵⁾ 격동하는 현실의 경제적·사회 문화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성의 신화는 끈질기게 이어진다. 이것은 일 차적으로 사회가 모성을 남용하기 때문이다. 재생산 노동 및 돌봄 노동을 여성에게 간편히 떠넘기기 위해, 또 사회의 구조적 문제들을 가리기 위해 모성은 호명된다. 그런데 구조의 적극적인 호명은 개인의 주체화 과정을 추동하게 마련이므로 모성의 신화가 지속되는 데에는 자발적으로 제도화 되려는 여성 주체의 욕망도 일부 얹혀들게 된다. 여성이 기왕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취득할 수 있는 가장 존엄한 자리가 바로 모성의 권좌인 까닭이다. ‘훌륭한 어머니’는 가부장제 사회의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상위의 지위이자, 잡음 없이 존경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위처럼 보인다. 하지만 모성 혐오와 모성 승배는 인과관계를 이루며 순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제도화되는 모성’ 같은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박서련의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주인공 ‘당신’ 역시 신화화된 모성 그 자체가 되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당신은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지승을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는 3학년 때 키 크는 한약을 먹고 살이 쪘서 왕따가 된 적이 있다. 게임을 못해 또 한 번 또래 집단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지승에게 게임까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려던 당신은 스스로 플레이를 하게 되고 이내 뜻밖의 재능을 발견한다. 아들을 괴롭히던 친구와의 대결에서 당신은 아들의 친구를 “무참하게 처치”⁴⁶⁾ 하지만, 게임 세계에서는 ‘엄마’가 욕으로 쓰인다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지며 이야기는 마무리된다. 다음은 소설의 마지막 부분이다.

45) 재클린 로즈, 앞의 책, 40쪽.

46)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42쪽. (이하 해당 소설 인용 시 팔호 안에 쪽수만 표기.)

당신은 계속해서 대화창에 엄마를 입력한다. ××. ××. ××. ××. 아
이가 당신의 손목을 붙잡는다.

엄마, 엄마라고 그만해. 계속 욕 쓰면 아이디 정지 먹어.

엄마가 왜 욕이야? 내가 네 엄만데.

당신은 마음을 가다듬고 적진으로 들어가 상대의 마지막 수호석을 파괴
한다. 아이가 간신히 내뱉은 말이 당신의 궤전을 윙윙 돈다. ××, 울어?
××, 괜찮아? 모니터에는 승리를 알리는 메시지가 뜨지만 당신은 더 이상
승자의 기분을 느끼지 못한다.(44-45)

우리 사회에서 게임을 향유하는 젠더의 기본값은 남성으로 설정되어 있
다. 일종의 상상된 남성동성사회인 셈이다. 여기서는 “운전 못하는 사람한
테 김여사라고”(36) 하듯이 “게임 못하는 사람한테 너 여자냐?라고 묻는
대신에 그냥 여자라고 단정하고 흔한 여자 이름으로 부”(36)른다. 그런 여
성혐오적 행위에 의해 여성의 이름으로 많이 사용되는 ‘혜지’가 게임 세상
에서는 욕으로 쓰인다.⁴⁷⁾ 이런 맥락을 알고 나면 오직 언어만으로 상대에
게 최대한의 모욕감을 선사해야 하는 특수한 환경에서 상대의 엄마를 멀
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생각될 지경이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게임 안에서 ‘엄마’라는 단어만 블라인
드 처리가 된다는 점이다. “혜지나 돼지는 괜찮고 엄마는 욕이라고?”(44)
라는 당신의 의문은 타당하다. ‘엄마’가 블라인드 처리되자 게임의 유저들
은 “느그 어미”(44)를 뜻하는 “NGUM”(44)이라는 단어를 만들어가면서
까지 악착같이 상대를 모독하려 든다. 이런 상황은 일차적으로 좋은 엄마

47) 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들의 공정성에 대한 열망과 ‘혜지’ 표현이 사용되
는 맥락, 그리고 이것이 남성 역차별론 및 여성혐오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현실에 대해
서는 이현준·박지훈, 「‘혜지’가 구성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와 남성 역차별 : 공정성에
대한 남성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열망은 어떻게 여성혐오로 이어지는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1.

가 되고자 했던 ‘당신’의 좌절로, 즉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모성의 지위가 하찮게 여겨지는 현실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된다.⁴⁸⁾ 하지만 “플랫폼 정책 상 ‘엄마’가 욕설로 간주되어 ××로 지워질 때조차, 욕설로 전락한 ‘엄마’는 그 장에서 강력한 공격 무기”⁴⁹⁾라는 점을 보다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 주체에게 어머니란 절대적 신성성의 영역이며, 오직 그런 한에서만 엄마는 “강력한 공격 무기”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느그 어미(는 창녀다)’가 가장 심한 모욕일 수 있는 것은 가부장제의 남성 주체에게 자신의 엄마가 가장 승고한/순수한 대상이기 때문이지, 엄마가 하잘것없는 존재라서가 결코 아니다. “××의 사랑, ××의 희생, ××의 헌신……” 그 모든 것이 더없이 고귀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비난은 주체를 타격하는 가장 심한 욕이 될 수 있다.⁵⁰⁾ 혐오의 원인은 송배다.

48) “소설은 일상의 언어 속에 여성혐오가 얼마나 두텁게 내장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블라인드 처리’하는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에피소드를 통해 보여 준다. ‘엄마’가 욕이라는데, ××의 사랑, ××의 희생, ××의 헌신…… 그 어떤 것인들 귀하게 여겨질 수 없을 테니 말이다.”(이은지 해설, 〈퀸 사이즈 소설과 그 여주들〉,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247쪽.) “(…) 이제 게임 자체가 당신에게 공허한 것으로 변했다. 그 게임 속에 여성이자 엄마로서의 당신의 자리는 없기 때문이다. 소설은 이렇게 모성적 희생과 투자의 윤리가 배신당하는 순간을 날카롭게 짚어낸다.”(김건형 해설, 〈당신도 잘 아는 그 게임의 룰〉, 전하영 외 6인, 『2021 제12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1, 239쪽.)

49) 김미정, 「여성 서사의 자궁심 :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민음사, 2022)/김유담, 『돌보는 마음』(민음사, 2022)」, 『문학과사회』 제35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22, 286쪽.

50) “여성혐오의 한국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이선옥은 “우리나라의 여성혐오의 특수성은 식민지 남성주체의 자기혐오를 투사한 현상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급속한 식민지 근대화와 물리적 힘에 대한 불안을 떨치기 위해 변하지 않는 민족의 정신을 민족의 어머니로 상징하고 근대화의 물결에 나서야 하는 남성 대신 민족의 절대정신을 지키는 여성 특히 어머니를 민족의 상징물로 삼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 때 여성의 몸은 ‘단일하고 순수한 민족 정체성의 상징’으로 규율화 되는데, 남성 주체가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지켜야 할 ‘무엇’이 된다. 그리하여 여성은 민족의 어머니 혹은 창녀라는

여성을 성녀와 창녀로 구분하는 것이 가부장제의 여성혐오적 전략이며, 이런 책략 속에서 ‘엄마’는 일반적으로 성녀에 분류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방금 살펴보았듯 실은 ‘모성’이라는 범주 자체가 성녀와 창녀의 극 단적 구분에 의해 가로질러져 있다. 엄마는 성녀이기 ‘때문에’ 창녀가 된다.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특히 대중서사들에서) 재현되는 엄마는 여전히 ‘생각만으로도 눈물 나게 하는 가슴 아린 존재’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 될 수 있다. 만약 엄마가 소중하고 애틋한 존재가 아니었다면 구태여 블라인드 처리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아빠’는 ‘××’가 아닌 것처럼 말이다.⁵¹⁾

이런 맥락에서 ‘맘충’이라는 혐오 표현을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아이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며 모성 주체에게 한정되는 혐오 표현인 맘충은, 이제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쓰이는 그야말로 범용적(기 혼 유자녀) 여성혐오 표현이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경우에 자기 아이만을 이기적으로 위하는 모성 주체를 향해 발화되곤 한다. 가족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맘충’인 이 어머니를 가족 내부의 시선으로, 특히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누군가는 배타적으로 자신의

이분화된 이미지로 지배된다”(이선우,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 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103-104쪽.) 이런 맥락에 의해서도 식민지 남성 주체에게 ‘너의 엄마는 창녀다’라는 발언은 가장 모욕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민족의 어머니’에는 당연하게도 식민지 남성 주체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이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51) 한편 소설 속에서 아이가 “오늘 우리 반에서 어떤 애가 어떤 애한테 너네 엄마 돼지라고 해서 개가 울었어”(16)라고 말하는 대목은 흥미롭다. 엄마의 외모는 미적 자원이 되어 아이들 사이에서 살뜰히 누려지거나 혹은 놀림의 대상이 된다. (물론 “결혼했다고 긴장 푸는 여자들하고 달라서 당신이 좋아”(16)라는 남편의 말에서 드러나듯 결혼한 여성 주체의 외모를 미적 자원으로써 만끽하는 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탈모가 걱정되어서가 아니라 아이가 당신 때문에 놀립당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16) 탈모 방지 제품을 구입하며 스스로의 미적 자원을 손실하지 않기 위해 애쓴다.

편이 되어준, 맘충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자신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눈물겹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는 가족 이기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신학적 모성 개념에 내재된 근본적 모순을 사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동일한 어머니에 대해 가족 안팎의 평가는 정반대일 수 있고, 여기서 가족 바깥의 혐오는 가족 내부의 승배의 원인이다.⁵²⁾

샬럿 퍼킨스 길먼의 <엄마의 자격>은 이와 같은 모성의 모순을 형상화 한 작품이다. 땀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한 에스더는 자신의 아이를 구할 것인가, 마을 전체를 구할 것인가 하는 잔인한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천 오백 명이 살고 있는 세 마을을 몰살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고, 마을을 지키는 일은 아이를 버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끔찍한 선택 앞에서 에스더는 “멈추지도 않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자기 집을 그대로 지나쳐” “곧장 마을로 달려갔”⁵³⁾다. 마을에 위험을 알린 후에 아이를 구하러 집으로 뛰어갔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땀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에스더의 집을 삼켰고 이 참사로 에스더와 남편은 실종되고 아이만 겨우 목숨을 건진다. 소설은 “엄마 자격이 없는 여자”(105) 에스더의 선택을 비난하는 목소리들로 채워진다. “천금을 준다 해도 자기 자식을 버리는 엄마는 없어요!”(91) “엄마의 소임은 제 자식을 돌보는 거야!”(105) <엄마의 자격>이 제시하는 이 불

52) ‘사적영역/공적영역’이라는 근대적 이분법이 여성을 ‘어머니/창녀’로 분열한다는 지혜의 말을 이런 맥락에서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라는 이러한 이원성에 어머니와 창녀라는 여성의 분열이 뿌리박혀 있다. 여성의 어머니이자 창녀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여성의 사적 영역에서는 어머니이고 공적 영역에서는 창녀라는 말이다. 그리고 그녀가 사적 영역에서 더 어머니일수록 공적 영역에서는 더 창녀가 된다.” (슬라보예 지젝, 『향락의 전이』, 이만우 역, 인간사랑, 2002, 287쪽. 번역 일부 수정함.)

53) 샬럿 퍼킨스 길먼, <엄마의 자격>, 『누런 벽지』, 임현정 역, 궁리출판, 2022, 103쪽. 이 후로 이 소설에서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하기로 한다.

가능한 선택이야말로 트롤리 딜레마에 비견될만한 ‘모성의 딜레마’다. 만일 소설과는 반대로 에스더가 자신의 아이를 살리는 결정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녀는 천오백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는 손가락질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아이는 세 마을과 자신을 맞바꾼 엄마의 절대적 사랑을 평생 외경하지 않았을까. 이럴 때 가족 바깥에서 모성에게 가해지는 비판들은 고스란히 가족 내부의 모성 송배 자원으로 기능할 것이다.

4. 나갈 수 없는

한국의 학술장에서 돌봄 담론이 광범위한 논의의 대상으로 부상한 이후, 여성의 가정 내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정의 요구는 차츰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경제적 인정의 부재가 명확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사회문화적 인정의 문제에는 다소 모호한 구석이 있다. 대중문화의 담론장에서 돌보는 여성들에 대한 송배가 얼마든지 발견되기 때문이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표현은 이런 분위기를 압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맘충’이라는 혐오 표현이 일상적 언어 사이를 활보하고 있다는 점에는 새로운 주목이 필요하다. 두 표현이 각각 우리 사회의 모성 송배와 모성 혐오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때, 저 둘은 어떻게 함께 발견될 수 있는가? 본고는 모성 송배와 모성 혐오 사이에 인과론적 순환 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재클린 로즈의 말대로 사회는 그 자신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모성 개념을 적극 활용해왔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교육 문제의 심각성을 모성에게 전가하곤 했다. 일상의 주체들을 서열화하는 학벌주의와 그에 따르는

과도한 비교·경쟁, 이를 기반 삼아 주체의 불안을 추동하고 스스로의 몸집을 불려가는 학원 자본 등 교육을 둘러싼 여러 이슈들은 자식 교육에 극성을 떠는 모성의 이미지로 손쉽게 치환된다. 한국 사회에서 모성 주체는 그 자신이 이미 살인적 경쟁 교육에 휘말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교육 제도의 여러 폐해가 떠넘겨지는 문제적 이미지로 전유된다.

개그우먼 이수지의 ‘제이미맘’ 캐릭터와 박서련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 보다 잘하는 게임>의 ‘당신’은 아이 교육에 집착하는, 그녀들 스스로가 신화적 존재가 되길 염원하는 모성 주체들이다. ‘제이미맘’ 캐릭터에 대한 대중의 과잉된 정념과 그로 인한 모종의 논란들은, 재현된 모성에 대한 혐오로 그에 상응하는 현실의 인물을 찾아내고 그에게 직접 애플을 쓰는 디지털 독자의 혐오 수행에 의해, 재현된 여성(제이미맘)이 현실의 여성(이수지, 한가인)에 대한 혐오로 매끄럽게 연결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제이미맘 사건에서는 현실과 재현의 층위를 넘나들며 모성 혐오와 모성 승배가 발견되고, 이 과정을 통해 모성 신화는 강화 및 재생산된다.

한편 박서련의 소설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의 ‘당신’은 아이에게 게임까지 과외를 시켜주려다가 자신이 직접 플레이를 하게 되는데, 그 세계 안에서 ‘엄마’가 욕으로 쓰인다는 것을 알고 충격에 휩싸인다. 그런데 이런 식의 혐오 발화가 가능해지는 것은 ‘엄마’가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 주체에게 가장 승고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절대적으로 고귀한 것이므로 엄마를 모욕하는 발화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승배는 혐오의 원인이다.

이처럼 모성 승배와 모성 혐오는 순환하며, 제도화된 모성이란 이러한 순환 자체를 일컫는 표현이다. 승배가 혐오의 원인이 되고, 혐오가 다시 승배의 원인이 될 때 모성의 ‘다른’ 자리는 어떻게 마련될 수 있을까. 승배와 혐오가 순환하는 매커니즘은 이미 한껏 왜곡되어 있는 상징적 장 안에서

의 문화적 인정이 만만치 않은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 사회의 모성 개념이 갇혀 있는 승배/혐오의 사이클에서 아직 나가지 못한 채 본고의 논의를 일단락짓기로 한다. 모성에 대한 학술적 탐구가 여전히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 민음사, 2022.
이수지 유튜브 채널 '핫이슈지'

2. 논문과 단행본

김건형 해설, 〈당신도 잘 아는 그 게임의 룰〉, 전하영 외 6인, 『2021 제12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문학동네, 2021.

김미정, 「여성 서사의 자긍심 :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민음사, 2022)/김유담, 『돌보는 마음』(민음사, 2022)」, 『문학과사회』 제35권 2호, 문학과지성사, 2022.

낸시 프레이저, 『전진하는 폐미니즘』, 임옥희 역, 돌베개, 2017.

로라 베이츠, 『인셀 테러』, 성원 역, 위즈덤하우스, 2023.

루시 쿡, 『암컷들』, 조은영 역, 웅진지식하우스, 2023.

마리아 미즈,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최재인 역, 갈무리, 2014.

박다솜, 「결핍으로서의 주체-김윤식의 작가 연구 방법론에 관한 소고-」, 『한국언어문화』 제79호, 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91-110쪽.

사라 러더, 『모성적 사유』, 이해정 역, 철학과현실사, 2002.

샬럿 퍼킨스 길먼, 『누런 벽지』, 임현정 역, 궁리출판, 2022.

새라 블래퍼 허디, 『어머니의 탄생』, 황희선 역, 사이언스북스, 2010.

슬라보예 지젝, 『향락의 전이』, 이만우 역, 인간사랑, 2002.

심혜경, 「개그/우먼/미디어: '김숙'이라는 현상」, 『여/성이론』 제34호, 도서출판여이연, 2016, 60-81쪽.

_____, 「개그/우먼/미디어 2: 이, '영자의 전성시대' 아니 '이유미의 황금기'를 보라」, 『여/성이론』 제40호, 도서출판여이연, 2019, 220-238쪽.

에이드리언 리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 김인성 역, 평민사, 2018,

- 엘리자베트 바탱테르, 『만들어진 모성』, 심성은 역, 동녘, 2009.
- 우에노 지즈코,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나일등 역, 은행나무, 2022.
- 이선옥, 「과학주의 시대 - 여성혐오라는 정동」, 『여성문학연구』 제36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92-116쪽.
- 이소현·장은미, 「예능 프로그램의 언니들: 여성성의 일탈과 확장」, 『한국여성학』 제34권 4호, 한국여성학회, 2018, 173-206쪽.
- 이은지 해설, <퀸 사이즈 소설과 그 여주들>, 박서련,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 임』, 민음사, 2022.
- 이현준·박지훈, 「'혜지'가 구성하는 여성에 대한 특혜와 남성 역차별 : 공정성에 대한 남성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열망은 어떻게 여성혐오로 이어지는가?」,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제22권 1호, 한국방송학회, 2021. 5-40쪽.
- 임옥희, 「주체화, 호러, 재마법화」, 윤보라 외, 『여성 혐오가 어렸다구?』, 현실문화연구, 2015.
- 장은미·허솔, 「여성들의 놀이터, 일상의 경험이 공유되는 새로운 방식: 팟캐스트 <송은이&김숙 비밀보장>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제37권 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2, 111-153쪽.
- 재클린 로즈, 『승배와 혐오: 모성이라는 신화에 대하여』, 김영아 역, 창비, 2020.
- 허윤, 「'딸바보' 시대의 여성혐오 - 아버지 상(father figure)의 변모를 통해 살펴 본 2000년대 한국의 남성성」, 『대중서사연구』 제22권 4호, 대중서사학회, 2016, 279-309쪽.
- _____, 〈#지금_가장_정치적인_것은_여성적인_것이다〉, 박권일 외 5인, 『#혐오_주의』, 알마, 2016.
- _____, 「광장의 페미니즘과 한국문학의 정치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9권 2호, 한국근대문학회, 2018, 123-151쪽.
-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카이스트 미래전략 2025』, 김영사, 2024.

3. 기타자료

<'제이미맘'은 무엇을 긁었나>, 『한겨레21』, 2025.03.08., <https://h21.hani.co.kr/>

- arti/culture/culture_general/56979.html. (검색일: 2025.06.21.)
〈한가인, 이수지 ‘대치맘’ 패러디에 불똥?…“극성 학부모” 악플 쏟아지자 결국〉, 『세계
일보』, 2025.02.25.,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225510036?OutUrl=naver>. (검색일: 2025.06.21.)
〈“이제 몽클 못 입겠다” “소름”…이수지가 뒤집은 당근〉, 『한겨례』, 2025.02.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82600.html.
(검색일: 2025.06.21.)

Abstract

The Vicious Cycle of Maternal Worship and Maternal Hatred - Focusing on Lee Su-ji's Character "Jamie Mom" and Park Seo-ryeon's "The Game Your Mom Plays Better Than You"

Park, Dasom(Hanyang University)

Since the discourse on care emerged as a subject of wide-ranging discussion in Korean academic circles, the demand for socio-cultural recognition of women's care work within the home has gradually become common sense in our society. However, unlike the lack of economic recognition that seems clear, there is some ambiguity in the issue of socio-cultural recognition of maternal care work. This is because, in the discourse of popular culture, the worship of caregiving women is readily found. At the same time, the hateful expression "mom-chung" also roams freely through everyday language. What is the reason for the simultaneous appearance of both the worship and hatred of motherhood?

According to Jacqueline Rose, society has actively utilized the concept of motherhood to conceal its own problems. In particular, Korean society has often displaced educational issues onto motherhood. In Korea, the maternal subject is simultaneously a victim caught in the murderous competition of the education system and a problematic image onto which the various dysfunctions of the education system are projected. Comedian Lee Su-ji's 'Jamie Mom' and 'You' from Park Seo-ryeon's novel "The Game Your Mom Plays Better Than You" are examples of this.

The recent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character of 'Jamie Mom' show the whole process of how the performance of hatred against the image of motherhood obsessed with the education of children ultimately reinforces the myth of motherhood. Meanwhile, Park Seo-ryeon's novel points out the phenomenon of

'mother' being used as a curse word in online games, and the reason such hate speech is possible is, paradoxically, because 'mother' is the most sublime object to the male subject in a patriarchal society. Here, worship is the cause of hatred.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at worship and hatred are not only structurally identical in the way they otherize motherhood, but also that worship and hatred operate within a tightly interconnected causal cycle, producing a mutually reinforcing dynamic. The mechanism through which worship and hatred circulate reveals how cultural recognition within an already heavily distorted symbolic field becomes a highly challenging issue. By identifying the cycle of worship and hatred in which the concept of motherhood in our society remains trapped, this paper underscores the urgent need for continued scholarly inquiry into motherhood.

(Keywords: misogyny, maternal hatred, maternal myth, maternal worship, institutionalized motherhood)

논문투고일 : 2025년 5월 14일

논문심사일 : 2025년 6월 12일

수정완료일 : 2025년 6월 18일

제재확정일 : 2025년 6월 19일